

■ 2026년도 공연예술창작주체(창작공간) 무용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도 공연예술창작주체(창작공간) 무용분야
-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 2025년 12월 10일(수), 14:00~18:00
 - (2차 인터뷰심의) 2025년 12월 14일(일), 13:0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메이플레이스 호텔 컨퍼런스룸 1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이근수, 이미희, 이태상, 오선명, 정형일, 정혜진

본 사업은 전국에 소재하는 무용 전문극장 중 우수한 공연실적과 모범적인 운영형식을 보여준 극장을 선정하여 공연장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극장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의 공연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가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도 무용 음악 연극 전통 등 모든 장르의 예술단체에 대해서 책정된 문예진흥기금 지원예산 규모는 1,048백만 원이며 장르별 접수 비율을 고려하여 무용 분야지원에 144백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025년 9월 23일 시작하여 10월30일에 마감한 응모기간 중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공연장(소유 혹은 대여)으로서 5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자격을 갖춘 5건의 단체가 신청하였으며 지원신청총액은 840백만 원이었습니다.

1차 지원신청서류 심의를 거쳐 2차 인터뷰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신청단체의 과거 운영 이력과 성과 및 인력 시설 등 사업수행 역량을 평가하고(30%) 공연시설의 안전성과 관객들의 정보 접근성 등 정량적인 기준(10%)을 별도로 평가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극장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간운영계획의 타당성과 완성도, 외부 단체 혹은 공연자와의 공동기획 구조와 수익 배분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합리성 등 실질적인 공간운영의 실현 가능성을(40%) 평가했습니다. 공연장 관객확대와 공간 특성화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수립하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극장 공간이용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20%). 1차 심의를 통과한 2개 단체에 대해서 시행된 2차 심의에서 신청자의 발표에 이은 심층적인 인터뷰심을 거쳐 지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두 단체가 모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단체 중 춤전용 M극장의 <ACTIVATION 프로젝트>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운영자의 타계 이후 공연장 리노베이션과 새로운 리더십으로 재출범한 극장의 연간 사업계획이 체계적이고 신선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공동기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외에 예산편성의 합리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용 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립했는가와 공적기금 수혜자로서 공공성 확대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했습니다. M극장과 <전통과 현대,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움직이는 열린 무대>를 기획한 두리춤터의 두 단체가 신뢰성 있는 사업수행실적과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와 지역에서 대표적 위상을 정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심의과정을 통해서 중요사항으로 검토한 것은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합리성입니다. 사업예산 중 직접경비와 경상비 구분이 명확하고 사례비와 인건비 등 지출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비현실적인 항목사업의 과대 계상 여부 등을 평가했습니다.

창작공간 무용분야에 대한 배정액 144백만 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M극장에 90백만 원, 두 번째 점은 점수를 받은 두리춤터에 54백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프로그램 전문가가 거의 상근형태로 근무하면서 소극장 운영의 합리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M극장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 평가하고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다년(3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연간 극장 가동률이 현저하게 낮거나 공연장 운영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좋은 평가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연장 운영은 시설관리와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사업이며 공동기획사업의 경우에는 협력단체에 대한 지원과 수익 배분 등 계획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계약이 요구됩니다. 공연장 운영과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예산수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공간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관객 수 통계의 정확성입니다. 연간 사업계획 중 관객 수와 대관 수입, 후원금 등 자체 조달 가능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자체 부담분으로 부족한 부분을 공공기금에서 보충받아 운영되는 방식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심의위원들은 믿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일동